



보도일시	배포 후 즉시 사용	배포일시	2022. 2. 9.(수) 배포
담당부서	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	담당자	과장 김희순, 사무관 천해선 (044-200-2287, 2298)

## 오미크론 대응, 동네 병·의원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 “내 환자는 내가 지킨다” 는 마음으로 적극 참여기로 한 의협 발표 환영, 정부도 필요한 지원 아끼지 않을 것

**김부겸 국무총리, 예림이비인후과(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) 방문**

- 정부, 오미크론 유행의 파고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총력
- 동네 병·의원의 적극 참여·협력 절실, 현장 안착이 오미크론 대응의 성패 좌우
- 서울지역 의사회 동참이 큰 힘...현장과 수시 소통하며 보완해나갈 것

- 김부겸 국무총리는 2월 9일(수) 오후, 종로구 예림이비인후과(종로구 종로 33, 그랑서울 3층)를 방문해 동네 병·의원 중심 코로나19 의료대응 현장을 점검했습니다.
  - 오늘 방문은 설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에 맞서 지역사회 의료대응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, 더 많은 동네 병·의원들의 참여와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.
    - \* (참석) ▲예림이비인후과 원장(강희선) ▲서울시의사회장(박명하) ▲종로구 보건소장(홍혜정) ▲복지부 보건 의료정책관 ▲국무총리비서실장, 국무1차장, 사회조정실장, 공보실장
- 김 총리는 먼저 홍혜정 종로구 보건소장으로부터 동네 병·의원 코로나19 대응 참여 현황을 청취한 후, 강희선 예림이비인후과 원장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으로부터 진단검사, 진료 등 코로나 의료대응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듣고 함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.
- 김 총리는 “연일 수만명이 확진되는 등 오미크론 본격 확산세에 맞서 정부는 유행의 파고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”면서,

- “특히, ‘동네 병·의원 중심의 코로나 검사·치료체계’의 현장 안착 여부는 오미크론 대응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”,
  - “서울의 경우 지역 의사회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동참해 위기 상황에서 큰 힘이 되고 있다”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.
- 또한 김총리는 “전시상황과 같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동네 병·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절실”하다고 언급하고,
- “예림이비인후과처럼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코로나 검사부터 치료까지 함께 가까운 곳에서 맡아 주신다면 방역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말했습니다.
  - 특히, “오늘 오전 대한의사협회에서 “내 환자는 내가 지킨다”는 마음으로 동네 병·의원이 코로나 의료대응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크게 환영하며,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강조했습니다.
- 오늘 현장에서는 일선에서 경험하고 있는 인력·공간 부족, 치료제 처방·사용 곤란, 비말 분산 방지를 위한 음압 항균 부스 필요성 등이 제기됐으며,
- 정부는 동네 병·의원 중심 의료대응체계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.